

박사학위 논문

## 김기림의 예술론과 명랑성의 시학 연구

김 예 리

2011년 8월 현대문학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 신범순 선생님

본 논문은 30년대 한국 모더니즘 문학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김기림 모더니즘의 특수성과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김기림 모더니즘의 특수성이 ‘배치’라는 개념에 있다고 보았다. 김기림은 일체의 형이상학적 관념을 예술의 영역에서 배제하면서, ‘동요하는 현실’과 ‘움직이는 주관’이라는 상대주의적인 세계관과 주제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구성하는 사물들 혹은 언어 기호들의 변화와 배치를 주목하는 유물론적 자세를 유지한다. 그리고 모든 물적 토대의 근원적인 원인을 상정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폐쇄적인 구조 속에 가두어버리는 리얼리즘의 방식과 모든 물적 조건으로부터 벗어난 관념의 세계로 도피하는 예술지상주의의 방식을 동시에 부정한다. 김기림이 자신의 시학에서 특히 언어와 시적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특이성 때문이다. 김기림의 사유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뒤집어볼 수 있는 지성의 능력이며, 이러한 능력을 통해 현실을 재빠르게 변형시킬 수 있는 시적 테크닉이다. 즉, 김기림은 재현의 문법 속에 구조적으로 닫혀있는 현실 세계를, 시적 테크닉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하고 새롭게 배치해봄으로써, 구조적 질서에 의해 숨겨져 있던 수많은 ‘제2의 의미’들이 생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시인의 존재이유를 찾았던 것이다.

김기림이 새로운 시인의 태도로 ‘명랑’을 강조하는 이유 역시 그가

‘배치의 기술’을 추구하는 시인이기 때문이다. 김기림이 인식하고 있는 30년대 도시 경성은 재현해야 할 원본을 선험적으로 상실하는 우울한 경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공간이었다. 다시 말해 30년대 경성은 주체의 자리를 ‘기호’에 빼앗기고 있던 시대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교통·통신 및 신문, 잡지 등과 같은 근대적 매체의 발전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다. 즉, 김기림의 모더니즘 시학은 사랑이나 영혼과 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와 관계 맺던 기존의 문학적 세계가, 신문이나 잡지가 생산하는 방대한 정보와 교통과 통신 매체가 생산하는 속도에 노출된 근대적 도시 공간과 새롭게 관계 맺게 되었을 때, 정보와 속도에 의해 생산되는 사회적 담론 체계 속에서 유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된 시인들이 이러한 현실에 맞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시학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서 중요한 것은 상징주의자들처럼 상실한 그 ‘무엇’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논리에 포섭되어 있는 기호들을 재빨리 다시 강탈해오는 것, 다시 말해 구축되어 있는 지배계급의 언어체계를 재배치하여 의미를 다른 ‘제2의 의미’로 바꾸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기림이 지향하는 ‘명랑성의 시학’이란, 인간의 지성적 작업의 결과물인 개념적 질서를 응시하면서 이를 다시 지성의 능력으로 파괴하고 재구축하는 재기 넘치는 탈경계적 상상력을 시인에게 요구하는 시학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기림 연구는, 이념이나 내면의 진실처럼 지금 당장은 그 실체를 알 수 없지만 어딘가에 참된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문학은 그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 고통스럽게 투쟁해야만 하며, 이러한 문학만이 참된 문학의 범주에 들어설 수 있다는 식의 완강한 도덕주의에 사로잡혀있었던 경향이 없지 않다. 본고는 김기림 모더니즘의 피상성이나 ‘가벼움’을 비판하는 기존 연구의 시선 자체의 부적절함을 비판하며, 김기림이 30년대 식민지 조선 현실에서 왜 ‘명랑’이라는 표현을 내세웠고, ‘명랑’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가 비판하는 지점은 무엇이며, ‘명랑한 오전의 시론’을 통해 구축하고 있는 그의 예술관의 정

체와 이를 통해 그가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현대시의 방향은 무엇이고, 나아가 ‘명량한 시인’의 ‘문명비판’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등을 탐색했다.

II장 1절에서는 김기림이 시론에서 이미지와 기술을 강조하는 이유와 시인의 능력으로 지성을 강조하는 이유를 김기림이 리얼리즘 문학을 비판하는 문맥 속에서 살펴봄, 리얼리즘의 재현의 논리를 대체할 김기림의 ‘배치의 시학’의 윤곽을 살펴보았다. II장 2절에서는 김기림의 독특한 주체론인 ‘움직이는 주관’과 김기림이 현대시의 방향으로 내세웠던 ‘객관주의’와의 상관성을 살펴봄, 이를 바탕으로 김기림의 ‘속도’가 현실 속도의 재현이 아닌 현실을 분해하는 시적 테크닉이라는 점을 논증했다. II장 3절에서는 이상 문학과 김기림 시학을 ‘배치’라는 동일한 시선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상 문학과 김기림 시학의 공유점과 차별적 지점을 읽어보았다. 그리고 이상 문학이 김기림 시학에 비해 더 전위적인 문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김기림 모더니즘 시학의 한계와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III장 1절에서는 김기림이 20년대적인 ‘슬픔’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추론해봄으로써 김기림의 ‘명량성의 시학’의 전사를 읽어보았다. III장 2절에서는 <<태양의 풍속>>과 수필 작품을 중심으로 김기림의 ‘거리 시학’을 구성해봄으로써 ‘명량성의 시학’의 전략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구인회 동인지 <<시와소설>>에 수록된 정지용의 <유선애상>, 이상의 <가외가전>, 김기림의 <제야>를 비교하여 세 시인의 시세계의 차별적인 지점을 읽어봄으로써 김기림의 모더니즘의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논증해보았다.

IV장 1절에서는 <오전의 시론>에서 주장하는 김기림의 휴머니즘론과 ‘명량성의 시학’의 관련성을 읽어보았다. 아울러 <<기상도>>의 매체적 특성을 짚어봄으로써 거리의 이미지를 모자이크하고 변형하는 <<태양의 풍속>>의 ‘거리시학’과 신문 매체적 속성을 보이는 <<기상도>>의 시적 세계와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IV장 2절에서는 지금까지 김기림 모더니즘 연구에서 비교적 논의가 되지 않았던

〈쥬피타 추방〉의 중요성과 그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명량한 모더니스트 김기림이 근대라는 거대한 세계를 초극하는 모습을 읽어 보았다.